

폴리실리콘 공장 염화실리콘 누출

8월9일 여수단지에서 미량 유출 ... 근로자 2명 부상으로 병원이송

여수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8월9일 기체상태의 염화실리콘(Silicone Chloride)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.

사고는 태양광연료인 폴리실리콘(Polysilicon)을 제조하던 중 염화실리콘 배관의 상판을 제거하려고 볼트를 풀다가 남아 있던 미량의 염화실리콘이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이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

여수단지에서는 3월 대림산업의 HDPE(High-Density Polyethylene) 저장탱크 폭발사고 이후 가스 누출, 폭발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.

5월에는 산업단지 도로에 C4 가스가 20여분간 누출됐으며, 7월에는 공장에서 부두로 연결된 원료 운송관로에서 액체 가성소다 250kg이 누출됐고, 7월27일에는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가 철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8/09>